ICRC

[인터뷰, 2008년 6월 26일]

전투수단으로서의 성폭력 근절

Jean-Marie Henckaerts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 전투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민간인에 대해 강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전쟁과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ICRC의 법률 고문인 쟝 마리 핸케르츠를 만나 이러한 조치의 중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사항 채택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핸케르츠> 이 결의사항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결의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혼란에 빠트리며 주민들에게 모욕감을 주어 살던 곳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전투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강간과 성폭력은 관계 당국에게는 그저 터부시 되어왔고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성폭력이 무력충돌 희생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 결의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것은 결국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결의사항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렇게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샤분다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실질적 차원에서 결의사항은 이미 무력충돌 당사자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투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모든 형태의 성폭력은 엄격히 금지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가려내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조치들이 있어야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질타 당하고 오명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이 결의사항에 대한 ICRC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핸케르츠> ICRC는 결의사항 채택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오랫동안 등한시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 행해지는 강간은 전쟁 범죄입니다. ICRC는 무력충돌 당사자들에게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성폭력 행위는 기소되어야 합니다.

ICRC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국가들로 하여금 무력충돌 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그런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환영을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결의사항의 성공 여부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취해질 후속조치에 달려있습니다.

Q.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핸케르츠> 강간은 여성에게 몇 가지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이나 불임 등이 그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행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비극을 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이상 가정을 돌볼 수 없게 될 때 이는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성들에게 행해진 성폭력은 가정과 사회의 남성들에게도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한 가정과 사회를 해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적군의 전투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Q.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ICRC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핸케르츠> 우선적으로 ICRC는 당국과 무장단체가 국제인도법 하의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해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ICRC는 관련 당국에 이를 보고합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자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키부 남부와 북부에서 ICRC는 피해자들이 PEP (post-exposure prophylaxis) 치료를 받게 하여 파상풍이나 B형 간염 등 및 HIV 등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CRC는 성폭력 후 치료 키트를 병원과 보건소에 보급하고 병원 직원들이 적절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RC는 필요한 외과 수술과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2007년 키부 소재 6개 병원과 4개 보건소가 ICRC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다. 다른 6개 병원과 8개 보건소는 필요할 때 마다 PEP 키트 등을 긴급 지원을 받았다. 또한 176명의 전문 인력이 ICRC가 마련한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웠고 PEP 치료 방법을 익히기도 했다.

ICRC는 또한 상담센터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상담 봉사원들을 교육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센터에 기초 물자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수리를 돕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 형태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상담센터를 지원합니다.

2007년 키부에 있는 29개 상담센터가 ICRC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2개 고마 시에 있는 실향민 캠프 내에 있는 것입니다. 950명이 넘는 강간 희생자들을 이 센터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ICRC는 성폭력 희생자들을 포함하여 무력충돌로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을 위해 부카부에 있는 정신과 센터에 관련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CRC는 지역사회가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받아들이고 도울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 지방 정부, 촌로 그리고 산파 및 치료사들과 토론 및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끝.